



# François-Frédéric Guy à la Cité de la musique

2008년 10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모두 아홉 번의 연주회로 파리 시테 드 라 뮤지크에서 프랑수와-프레데릭 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완주했다. 국내에서도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피아니스트들이 이미 베토벤 소나타 전곡 완주를 했고, 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피아니스트들의 역량이 어느 수준으로 발전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수와-프레데릭 귀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는, 어쩌면 그다지 흥미로운 소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피아니스트에게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기에, 이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귀의 베토벤 소나타 연주를 들으면서, 어렵지 않게 그는 베토벤 소나타를 오케스트라적으로 파악하는 피아니스트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 -베토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린 시절에 빌헬름 쾰프와 알프레드 브렌델 등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서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브렌델은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는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해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88년 파리 음악원 입학 시험을 볼 때에 베토벤의 함머클라비어 소나타의 마지막 푸가 악장이 시험곡이었다. 그때 나와 당시 나의 피아노 선생님은 놀라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연주회에서 마우리치오 폴리니가 함머클라비어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을 연주회에서 직접 들었고, 이 소나타에 정말로 매료되었다. 다행히 음악원에 합격했고, 합격한 다음에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전악장을 공부했다. 어쩌면 당시 베토벤의 가장 어려운 소나타인 함머클라비어를 젊은 시절에 공부하고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 베토벤 소나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함머클라비어 소나타는 현재까지 연주회에서 67번 연주했고, 이미 두 차례 녹음을 마쳤다.

라 로크 당태롱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엠마누엘 스트로세 · 클레르 데제르 등 6명의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베토벤 팀은 전 세계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10회 이상 연주했다. 연주회가 계속 되는 동안에 나는 자연스럽게 혼자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베토벤의 음악이 좋았다. 몬테 카를로의 봄 예술 축제의 예술감독이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일주일 동안 연주할 것을 제안했고, 나는 즉시 받아들였다. 예술감독의 생각은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 동안 베토벤 패스를 지닌 관객들은 페스티벌과 더불어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발견하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아직 완전히 제대로 배우지 않은 소나타들이 있었기에 정말로 거의 미친 듯이 준비에 몰두해야만 했다. 이번에 시테 드 라 뮤지크에서의 전곡 연주는 두 번째, 그리고 내년 2월에 워싱턴에서 전곡 연주가 잡혀 있으니, 일 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에 베토벤 소나타를 모두 세 번 전곡 연주하게 되는 것이다.

## -분명히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일은 외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스스로 베토벤 전곡 연주를 요트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것에 비유한다. 혼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중계하는 것을 관람한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도 한다. 바다의 파도, 위험 등을 극복해야 하는 이 일은 베토벤 소나타를 전곡 연주하는 일에 그대로 비유될 수 있다.



## 프랑수와-프레데릭 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 길고 긴 바다 항해를 마치고...

나는 스스로 베토벤 전곡 연주를 요트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 것에 비유한다. 혼자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중계하는 것을 관람한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도 한다. 바다의 파도, 위험 등을 극복해야 하는 이 일은 베토벤 소나타를 전곡 연주하는 일에 그대로 비유될 수 있다.

글 · 김동준(음악평론가)



**-요트여행은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된다. 당신에게 이 외로운 여행의 보상은 무엇인가.**

우선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보상이다. 베토벤 소나타가 이렇게 연주되어야 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연주가 잘 끝났을 때, 막바지로 가면서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보상은 나와 함께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 99개의 악장을 모두 함께 들은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청중들은 더 이상 청중이라 부를 수 없다. 32개의 소나타를 계속해서 듣는 청중들은 나에게 정서적인 지지이자, 응원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말로 감동적인 것이다. 청중은 베토벤 소나타와 함께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을 경험한다. 베토벤 소나타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베토벤을 제외한 다른 작곡가들은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토벤은 금기시 여겨지던 감정을 표현한 첫번째이자 유일한 작곡가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베토벤 소나타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반추하게 된다. 베토벤의 소나타를 순서대로 듣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나가는가를 알게 된다.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에 비교할 수 있는 음악은 말리의 교향곡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서전이라는 표현은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32개의 소나타는 따로 떨어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씩 변모해가고, 발전해 가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말리의 9개의 교향곡은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번에 시테 드 라 뮌지크에서는 하루에 세 번의 연주회를 한 날도 있었다. 힘들지 않았다.**

솔직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한번의 연주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몬테 카를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두 번의 연주회를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그리고 저녁 9시에, 마치 두 개의 연주회 사이에 중간휴식이 있는 것처럼, 이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오전에 한 연주회, 오후에 한 연주회, 저녁에 또 한 연주회는 집중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 힘든 경우이다.

**-당신은 모든 소나타를 암보로 연주했는데, 이는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슐리아토슬라브 리히터가 과거 함머클라비어 소나타로 연주여행을 할 때에 이 소나타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아서,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바닥에서 뒹굴었다는 일화가 생각된다. 암보에 대한 어려움이나 걱정 같은 것은 없었나.**

당신의 질문에 대해 여러가지 답이 떠오른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에 함머클라비어를 먼저 공부하고, 연주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처럼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에는 나도 리히터와 같은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주하고, 두 차례의 녹음을 마친 뒤에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오히려 전곡을 공부하는 것이 암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니까 32개의 소나타, 99개의 악장이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도, 힘든 작업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나 역시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주하는 동안 긴장감이 너무나 커서 암보의 부담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도, 연주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연극배우가 몇 시간이 걸리는 텍스트를 외워서 연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수많은 연주를 통해서 암보실수를 하더라도, 음악전체를 망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 물론 전곡 연주 준비를 위해서 수년간 준비하고, 두 달 전부터는 다른 연주회는 전혀 하지 않았다. 친구가 빌려준 아일랜드의 한 집에서 혼자서 매일 베토벤 소나타를 전곡 연주하면서, 암보를 확인했다. 때로는 가장 많이, 자주 연주한 소나타에서 암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

롭게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요트로 세계일주를 한번 마쳤다고 해서 세계일주가 결코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된다. 처음에 몬테 카를로에서 혼자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한 것과 이번에 시테 드 라 뮌지크에서 두 번째 전곡 연주를 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경험이다. 내년 2월에 워싱턴에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경험을 하다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제 나는 좋은 암보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웃음).

**-모든 소나타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 32번은 정말로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악장, 주제와 변주에서는 유럽의 그 어떤 음악에서도 느낄 수 없는 동양적인 시간개념을 느끼게 된다. 이번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와 더불어 드뷔시 피아노 작품 전곡 연주가 알랭 플라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시간성의 관점에서 두 작곡가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베토벤과 드뷔시는 어떤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작곡가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 두 작곡가 모두 그들이 살았던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음악미학을 제시했다는 것일 것이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음악언어 위에서 자신의 음악언어를 정립했지만, 그것을 또한 완전히 붕괴한 혁명적인 작곡가이기도 하다. 드뷔시는 바그너와 기존의 프랑스 음악에서 자신의 음악언어를 정립했지만, 이미 젊은 시절의 작품에서부터 기존의 작품언어를 붕괴하는 새로운 언어로 곡을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 음악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마우리치오 폴리니는 라벨의 피아노 작품을 연주하지는 않지만, 매우 좋아한다. 새로운 작품들을 발견하는 것에 큰 열정을 지니고 있는 폴리니의 생각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에게 라벨은 천재이기는 하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천재 작곡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드뷔시는 혁명가라는 것이다.

**-후기 소나타들을 연주회에서 들을 때에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테 드 라 뮌지크의 앙피테아트르는 후기 소나타를 비롯한 몇몇 소나타들을 위해서는 조금 공간감이 부족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당신의 말처럼 후기 소나타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했지만, 앙피테아트르에서 전곡 연주를 마치고 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곡 연주를 하면서 장소에 대한, 공간에 대한 동일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공간감이 조금 부족했지만, 청중과 매우 가깝게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연극 극장처럼 말이다. 결국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고, 전곡 연주에 동참한 청중들이 베토벤 소나타를 좀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이 공간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좀더 강한 연주회였다.

귀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음악감독으로 부임하게 될 필립 조르당과 베토벤 협주곡 전곡 연주회를 살 플레이엘에서 할 예정이고, 브람스의 피아노 작품 전곡 연주회도 갖게 될 예정이다. 그의 젊은 나이를 생각하며, 그의 프로그램과 음악행보가 참 건강하다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랑수와-프레데릭 귀와의 인터뷰는 예정보다 서둘러 끝나야만 했다. 프랑스의 지역에 사는 그의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보러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귀는 결코 슬퍼보이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떠나면서 말했다.

아버지는 행복했다. 아버지는 몬테 카를로와 파리의 시테 드 라 뮌지크에서 내가 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모두 들었다. 시테 드 라 뮌지크에서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연주를 마친 저녁에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는 참 연주를 잘했다."

(프랑수와-프레데릭 귀와의 인터뷰는 2008년 10월 28일 파리에서 이루어졌다)

